



명예와 별(Yugo y estrella): 저항과 독립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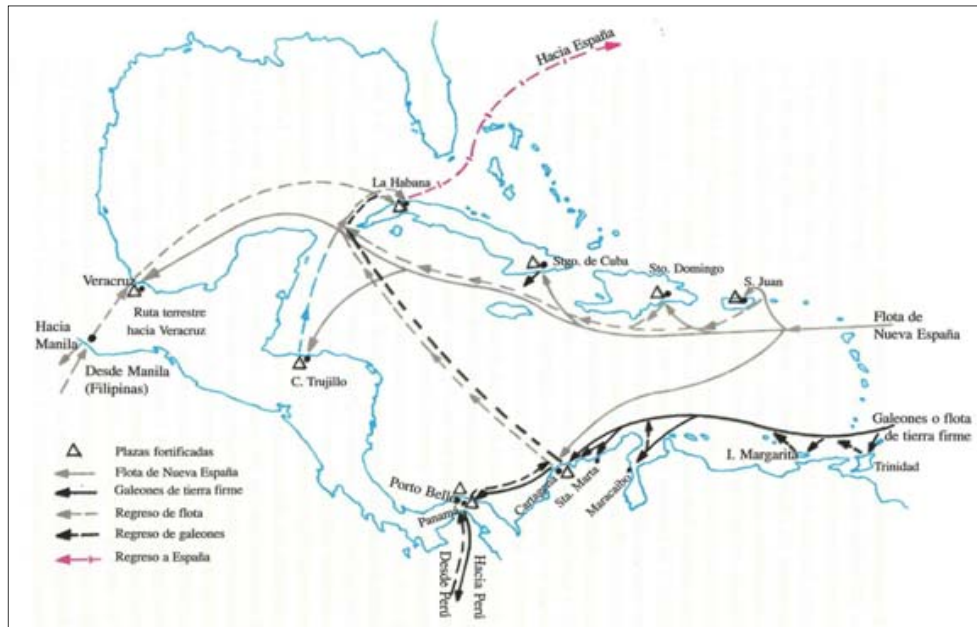
권 봉 철

카리브의 섬나라 쿠바! 쿠바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혁명과 체게바라가 있고, 원초적 몸짓과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춤과 음악이 있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쿠바는 20세기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o) 체제와 그 실존조건을 가늠케 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 삶의 조건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 역학관계가 더 결정적일 때도 있다. 자유의지는 언제나 나름의 실존적 명예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한 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쿠바의 역사는 온전한 독립을 위한 끝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식민종주국 스페인의 직접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이 그러했고, 새로이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패권주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혁명과정이기도 한 그러했다. 어렵사리 쟁취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저항은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쿠바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저항과 독립의 문화이다.

쿠바는 19세기 말까지 스페인의 식민지 보루 역할을 해왔다. 아바나 항구는 16세기 이래 식민종주국 스페인으로 가는 허브항구 역할을 했다. 카리브해와 남북미대륙과 필리핀에 이르는 촘촘한 실타래 같은 그물망을



스페인의 식민지 향해 노선과 허브 항구 아바나(La Habana). 출처: Eduardo Torres-Cuevas, Oscar Loyola Vega, *Historia de Cuba*, Editorial Pueblo Y Educación, La Habana, Cuba, 2001, p.70.

통해 거두어들인 재화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스(Veracruz)와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Cartagena de las Indias) 항구를 거쳐 아바나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모아서 스페인으로 옮겨졌다. 아바나는 스페인의 식민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거두어 들이는 버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아바나는 쿠바가 아니라 오직 스페인을 위한 존재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페인은 결코 쿠바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쿠바는 오직 독립만을 꿈꾸며 30년간 이어진 전쟁을 감내하고 있었다. 1898년의 일이다. 스페인과 쿠바 간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결국 아바나 항구에는 성조기가 올랐다.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를 이양받은 미국은 쿠바의 제헌헌법에서 국제조약체결권을 없애고, 미국의 쿠바 내정간섭권을 명시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성조기를 쿠바 국기로 바꾸어 달게 했다. 20세기 팩스 아메리카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식민주의는 이렇게 쿠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후 미국은 플랫(Platt)법안으로 강제했던 내정간섭권을 근거로 쿠바를 다시 점령하고 직접 통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20세기 전반기에 라스 베가스(Las Vegas) 부럽지 않은 호화로움으로 “환락의 하바나”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아바나가 일렁이는 카리브 바다와 코이바 시가(Cohiba Cigar) 연기 속에 불야성을 이루던 1959년까지도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일꾼들이 여전히 식민지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손



1902년 점령국 미국의 성조기를 내리고 쿠바 국기를 게양하는 모습(아바나의 모로 성, Castillo del Morro)

으로 직접 추수하고 있었다. 원유 채굴과 석유 관련 시설은 모두가 영국과 미국 수중에 있었다. 이번에도 아바나는 쿠바인을 위한 아바나가 아니었다.

식민지체제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식민지는 자체적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탈(脫)식민지는 곧 존재론적 혁명이다. 독립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니며, 스스로가 삶의 리듬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카리브 권역의 섬은 13개의 독립국과 10개의 식민지, 속령 내지는 자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리브의 많은 섬들 중에서 스페인의 직접통치를 받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식민지 두 곳이 바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태평양의 괌(Guam)과 함께 현재까지 미국에 포함되어 미국문화와 달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쿠바는 오직 독립만을 주장하다가 미국의 새로운 패권주의체제를 수용하고, 1902년에 그나마 제한적인 독립정부를 구성했다. 미국의 신식민주체제와 패권주의 간섭을 수용했던

이 20세기 전반기가 바로 “환락의 하바나”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20세기 후반기는 이마저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이었다. 현재의 쿠바 모습이기도 하다.

쿠바는 스페인이라는 오래된 식민지 명예를 떨쳐내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스페인은 쿠바 식민지경제의 근간이었던 사탕수수 단작경제(Monoculture)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다. 19세기 쿠바는 이렇게 해서 흑인노예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식민지체제를 지탱하던 흑인 노예들이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쿠바는 새롭게 태어났다. 쿠바의 독립운동은 1868년 노예해방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독립전쟁의 역사는 곧 쿠바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었다. 아바나의 말레콘(Malecón, 방파제) 거리에는 말을 탄 거대한 동상 하나가 시내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다. 바로 쿠바 독립의 영웅 안토니오 마세오(Antonio Maceo, 1845~96) 장군이다. 그는 처음에는 일개 병사로 참여했던 몰라토(Mulato)였다. 이렇게 노예가 주인으로 참여하고, 식민지가 스스로 독자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존재론적 혁명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들을 제쳐두고 어찌 오늘날 쿠바의 춤과 음악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는 쿠바를 이루는 한 뿌리가 되었다. 강력한 타악기 리듬은 곧 쿠바의 음악이고 산테리아(Santería)는 쿠바의 종교문화이다.

쿠바에서 인종차별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이유는 차별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본주의 문화와 가치존재론적 혁명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싸운 전우이자 동지이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다. 차별의 인식론 자체를 재고하면서 이루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1946년에 출간된 인류학자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의 저작, 『인종차별주의의 속임수』(El engaño de las rasas)가 2011년까지도 또다시 판을 거듭해서 읽히는 이유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쿠바에는 오직

쿠바인이 있을 뿐이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없이 인간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쿠바인의 삶이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즐기는 모습이다. 반독재, 반제국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그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사회주의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이념과 교육을 통해 인간평등은 일상화되었다. 쿠바 여성들의 언어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자연스럽고 당당하다.

남녀 할 것 없이 쿠바인들의 일상 몸짓은 그저 리듬을 탄 춤같이 자연스럽고, 소리 지르듯이 말하는 쿠바 특유의 스페인어에서도 자연의 동물적 울부짖음과 같은 음악성이 느껴진다. 원초적 몸짓과 울부짖음은 자연스런 일상 같기도 하고, 춤과 음악으로 이어지는 예술 같기도 하다. 상업화되지 않은 일상 속의 예술, 그저 삶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재능의 표출이다.

쿠바는 공공건물마다 미술관이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다. 아바나 시내에 즐비한 고색창연한 성곽과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도 역사박물관이요 건축예술품이다. 장엄하면서도 정제된 듯한 조형물이나 기념물은 쿠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변화와 함께 닥쳐온 외부로부터 주어진 압박은 쿠바 내부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게 했다. 이 시기를 쿠바에서는 “특별기간 (Periodo especial)” 이라고 명명했다. 쿠바는 생존이 걸린 극심한 경제난을 거치며 내부 경제구조를 재편해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정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했다. 이중환율제 (24대 1)도 도입되었다. 전세계의 관심은 쿠바 체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에 집중되었고, 미국은 새로운 경제제재법안 (Ley Toricelli, Ley Helms-Burton)을 통해 쿠바를 압박했다.

스페인의 직접지배와 미국의 신식민지체제를 통해 만들어진 도시공간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워싱턴(Washington) 국회의사당을 연상케 하는 카피톨리오(Capitolio, 1929, 현재는 박물관)와



아바나 비에하(구시가지), 관광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쉽게 쿠바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1930년에 지은 내셔널 호텔(Hotel Nacional de Cuba)은 아바나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 스페인으로 보낼 금은보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요새와 식민지를 지배하던 총독부 건물 등은 모두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착취와 종속의 원인이었던 사탕수수 산업은 쿠바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의 하나인 아바나 클럽(Habana Club)이라는 럼(Rum)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이 빚어내는 정열적인 타악기 리듬과 현란한 몸짓은 쿠바의 전형적인 춤과 음악으로 관광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다. 쿠바는 관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특별기간을 거치며 쿠바인이 감내하던 결핍의 균등은 이제 외부인들이 개입하면서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결과는 외국인과 국내인의 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내부 구조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관계

를 맺는 쿠바인과 그렇지 않은 쿠바인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쿠바인의 일상 속에 외국인이 함께하거나 표류하는 경계에 외국인 관광정책이 있다.

일상의 변형은 이렇게 일어나 삶의 본말을 전도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흘리는 외화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하룻밤 화대는 일반인들의 몇 달 치 월급에 해당한다. 과도한 물질적 궁핍은 비굴과 기만을 거쳐 스스로에게 자기합리화를 덧씌운다. 물질의 과잉으로 인한 방종과 오만은 명에를 순순히 받아들이고는 스스로 자위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 삶의 조건은 외부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명에가 굳이 외부조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 없는 어느 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의 유명한 시 「명에와 별」(Yugo y estrella)¹⁾은 이렇게 시작한다.

「명에와 별」을 통해 마르티는 어머니의 말을 빌려 명에와 별로 상징되는 삶을 노래했다. 맛있는 귀리죽과 따뜻한 쭉이 깔린 잠자리를 위해 명에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온순한 소의 삶이 있고, 고난을 자처하며 스스로 산화하여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삶이 있다. 비록 현실이 발목을 잡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르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 비록 내 양쪽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을지언정 이마에는 스스로 빛나는 별을 아로 새기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했다.

호세 마르티(1853~95)는 쿠바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산화했다. 그리고 쿠바 독립의 사도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 별은 체 게바라의 베레모에, 또 모든 쿠바인의 가슴에 새겨졌다. 마이애미의 반혁명 세력들에게도 호세 마르티의 별은 여전히 쿠바인을 상징하는 빛이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너무 가혹하고, 선택의 순간은 어렵다. 쿠바는

1) José Martí, *Obras Completas*, Vol. 14, La Habana: Centro de Estudios Martianos, pp. 142-143.

혁명 이래 최대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며 먹을거리를 재배할 화학비료조차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자연유기농법 개발을 선택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이나 모두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그 판단은 자연과 조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연 파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모든 행위에는 나름의 잇속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모든 현실이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지만 이러한 정황이 곧 한 사회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권봉철 - 쿠바 아바나대학교 한국어 초빙교수